

[보도자료] “몰스킨 노트부터 최신 모니터까지” 쿠팡, 새학기 준비 직수입 상품 최대 55% 할인

2025. 2. 17.



- TCL·빅트랙·스탠리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참여
- 23일까지 유아용품부터 디지털 가전까지 폭넓은 상품군 할인

2025. 02. 17. 서울 - 쿠팡이 오는 23일까지 ‘쿠팡수입 새학기 준비 세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학기 필수 품부터 디지털 가전,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상품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먼저,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최신형 가구를 대거 마련했다. 빅트랙의 카본 텍스처 Z형 프리미엄 책상을 9만원대, 프리미엄 게이밍 의자는 12만원대, 베이직 발받침 사무용 의자는 8만원대에 제공한다.

모니터와 마우스, 헤드셋도 할인 판매한다. 뛰어난 가성비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빅트랙’의 FHD 22형 평면 모니터를 8만원대에 판매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TCL’의 34인치 4K MiniLED 모니터는 64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유명한 ‘베이스어스’의 Bass 35 Max 블루투스 헤드셋은 3만원대, 블루투스 옵티컬 무선 마우스는 1만원대에 선보인다.

식기와 완구류도 특별가에 준비했다. 1947년 설립된 영국 명품 도자기 브랜드 포트메리온의 어린이 식기 컬렉션 ‘미니메리온’에서 토끼와 곰 식판을 8000원대, 토끼 볼을 4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투칸 직소 퍼즐 3종 세트(8000원대), 촉감놀이 2종 세트(2만원대) 등 인기 완구 상품도 많다.

19세기 파리의 예술가와 작가들이 사용하던 수제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이탈리아 프리미엄 문구 브랜드 ‘몰스킨’의 다양한 노트를 비롯해 라벨기, 복사용지, 클립보드 등 인기 문구용품도 할인한다.

와우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스탠리의 인기 텀블러 구매 시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의 다운로드 쿠폰을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3000여 개의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하는 ‘쿠팡수입관’을 운영 중이다. 모든 상품은 국내 안전성 및 검사 기준을 통과한 정식 수입 상품으로 쿠팡이 직접 수입 및 통관을 진행한다. 행사 페이지는 쿠팡 앱 홈 화면의 ‘쿠팡수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